

## 농어촌공사 동진지사, 3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

[심정식]



© 전북금강일보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30일 김제시 금산면 소재 청도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, 영산강홍수통제소, 전북특별자치도, 김제시, 소방서, 경찰서 등 14개 유관기관·단체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'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·태풍 등 복합재난 증가에 대비해,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취수탑 접근이 제한돼 방류가 어려워지고 수위 상승으로 제방 월류 및 사면 슬라이딩 위험이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.

훈련은 △재난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체계 가동 △대피 및 현장통제 △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, 각 기관 간 신속한 협조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점검했다.

특히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자 굴삭기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하고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전도된 전신주를 응급 복구하는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진행했다.

/심정식 기자 sjs2113@daum.net

251031085806.jpg  
(642 X 868)

##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30일 김제시 금산면 소재 청도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, 영산강홍수통제소, 전북특별자치도, 김제시, 소방서, 경찰서 등 14개 유관기관·단체 120여 명이 참여해 ‘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’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·태풍 등 복합재난 증가에 대비하여,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취수탑 접근이 제한돼 방류가 어려워지고 수위 상승으로 제방 월류 및 사면 슬라이딩 위험이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.

훈련은 △재난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체계 가동 △대피 및 현장통제 △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, 각 기관 간 신속한 협조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점검했다.

하인호 동진지사장은 “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”고 밝혔다.

김제=강현규 기자

(5.8\*16.9)cm

## 농어촌공사 동진지사, '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(지사장 하인호)가 30일 김제 금산면 청도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영산강홍수통제소, 전북특별자치도, 김제시, 소방서, 경찰서 등 14개 유관기관·단체 120여 명이 참여가운제 '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·태풍 등 복합재난 증가에 대비, 호우와 산사태로 취수탑 접근이 제한돼 방류가 어려워지고 수위 상승으로 제방 월류 및 사면 슬라이딩 위험이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.

훈련은 ▲재난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체계 가동 ▲대피 및 현장통제 ▲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, 각 기관 간 신속한 협

조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점검했다.

특히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자 굴삭기를 투입, 토사를 제거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조를 통해 전도된 전신주를 응급 복구하는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진행했다.

또한 제방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이펀(Siphon)을 이용한 비상 방류를 실시하고, 제방 슬라이딩 발생 지점에 방수포 포설 등 수방자재를 투입하는 응급 복구 활동을 전개하며 현장 대응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했다.

하인호 지사장은 "재난은 사전 대비와 협업이 가장 중요하며,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"고 말했다. 김제=임재영기자

(11.8\*9.5)cm

## 농촌공 동진지사,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(지사장 하인호)는 30일 김제시 금산면 소재 청도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, 영산강홍수통제소, 전북특별자치도, 김제시, 소방서, 경찰서 등 14개 유관기관·단체 120여명이 참여해 '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·태풍 등 복합재난 증가에 대비해,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취수탑 접근이 제한돼 방류가 어려워지고 수위 상승으로 제방 월류 및 사면 슬라이딩 위험이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.

훈련은 ▲재난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체계 가동 ▲대피 및 현장통제 ▲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, 각 기관 간 신속한 협조체계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점검했다.

하인호 지사장은 "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"고 밝혔다.

동진지사는 이에 따라 태풍·지진·가뭄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응한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제 양병대 기자ybd3465@daum.net

(8.7\*11.6)cm